

들어 봤수 발해대장경?

조병순씨 국내 최초 발해 대장경 발견

국내 최초로 발해에서 제작된 대장경이 공개됐다. 더구나 이번에 발견된 대장경은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그 가치를 더한다. 이 대장경은 한반도 남쪽에선 통일신라, 북쪽에선 발해가 성장함으로써 남북국 시대로 불리고 있는 시기인 8~9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서지(書誌)와 관련한 발해의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지학자 조병순(83세) 성암고서박물관장은 최근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인 '대방광불(大方廣佛) 화엄경(華嚴經) 권제38 대화령국장(大和寧國藏)'이란 제목의 불경을 일본에서 입수, 공개했다. 총 길이 8m 50cm, 세로 28.6cm의 이 불경은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사용됐던 삼베로 만들어진 황마지 위에 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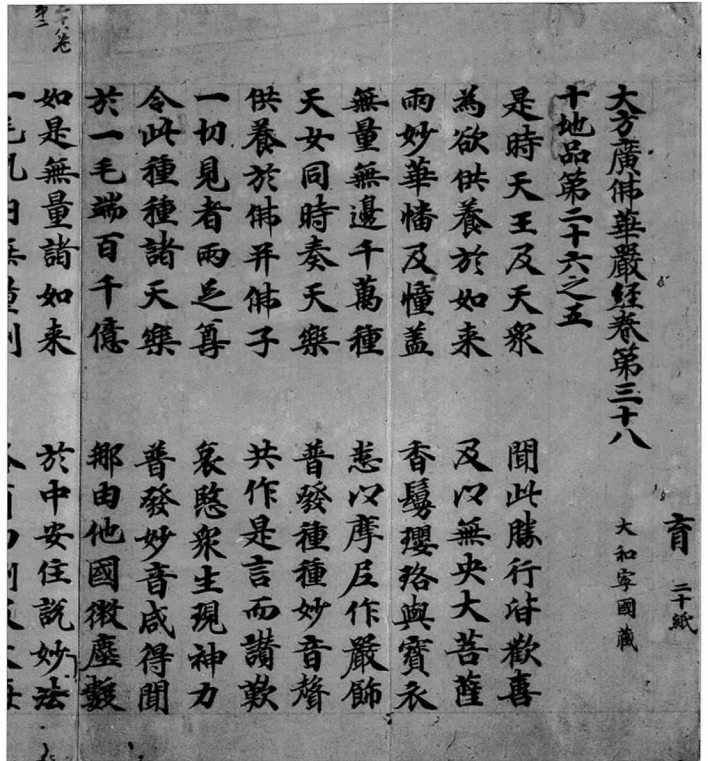
함차번호 · 발간 지역 발해 제작 근거

이 불경이 발해의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대장경을 5048권의 형식으로 규정시켰던 당나라의 '개원속교록'이 발간된 730년 이후에 제작된 모든 대장경에는, 대장경의 여러 권을 묶어 천자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고유 함차번호가 표시된다. 그런데 송나라 때인 974년 이후에는 목판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함차번호의 형식도 바뀌게 된다. 이 함차번호의 형식에 따라 이 대장경은 730년 이후 974년 이전에 제작된 것



조병순 관장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목에 표시돼 있는 '대화령국장'은 화령 지역에서 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화령 지역은 지금의 함흥으로 8~10세기에는 발해(698~926년)의 지배 하에 있었다. 아울러 주사(朱砂)로 패션을 긋고 황마지를 사용한 것도 '중국 불경'에서



△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이 이번에 공개한 '대광광불 화엄경 권제38 대화령국장'은 합차번호, 제작지역, 종이, 서체 등을 종합해 볼 때 8~9세기경 발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 당시 한반도에서는 닥나무의 성장관계선에 따라 그 이남 지역에서는 닥나무로 제작한 한지가 북방에서는 삼베로 만든 마지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합차번호, 제작지역, 종이, 서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조 관장은 이 대장경이 8~9세기경 발해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 관장은 그 당시 함흥지역은 매우 번성했던 지역으로서 발해의 지역수도 역할을 하는 남경이었다는 학설도 있음을 제기했다. 함흥지역이 대장경을 발간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은 고려시대인 1006년 제작된 '대보적경(大寶積經) 권 제32'로 알려져 있었다. '대화령국장'의 일부는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도 있지만 그동안 '14세기 불경'으로 잘못 해석돼 왔다.

대장경이란?

대장경은 불교경전의 총서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경(一切經)·삼장경(三藏經) 또는 장경(藏經) 등으로 약칭한

다. 대승(大乘)·소승(小乘)의 삼장(三藏), 곧 석가의 설법을 기록한 경장(經藏), 교단(教團)의 계율 및 그것을 해설한 율장(律藏), 경(經)의 주석문헌(注釋文獻)인 논장(論藏)을 집대성한 불교의 대경전이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석가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비롯하여 인도·중국 등지의 제조사(諸祖師)·고승(高僧)들이 남긴 저서·문헌들도 이에 포함하게 되었다.

여기서 '장(藏)'이란 산스크리트〔梵語〕 피타카(pitaka:광주리)에서 연유하여 문서·교의(教義)를 담는다는 뜻이며, '경(經)'은 수트라(s後 tra)에서 연유하여 날실(經絲)을 의미한다. 불교경전의 결집(結集)은 석가 입멸(入滅)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결집되었다. 따라서 이를 분류할 때는 9분교(九分教)·12부경(十二部經)·사아함(四阿含)·5니카야(部) 등의 분류술어(術語)를 사용한다.

언어별 종류로는 산스크리트·팔리어〔巴利語〕·한역(漢譯)·티베트〔西藏〕 장경 외에 한역서와 서장 장경을 번역한 몽골·만주장경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완비되고 양로나 질로 우수한 것은 한역장경이다.

(조갑준 차장)